



제3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

대한민국을 안전 먹거리 구역으로 선포한다

지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주최로 개최된 제3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다양한 부대행사로 여느 해보다 식품안전에 대한 볼거리, 알거리가 풍부했다.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제과인들도 '국민 건강의 파수꾼' 역할을 다짐하며, 이번 행사의 주인공으로 맹활약했다.

취재 · 김미선 기자 | 사진 · 전문식, 주현진

안전한 식품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식품안전의 날이 올해로 세 돌을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다채로운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를 주최했다. 이 행사는 올해를 시작으로 정부 주도의 딱딱한 행사에서 벗어나 식품관련 단체와 업체가 어우러진 전 국민적 축제로 거듭났다는 평을 얻었다.

특히 (사)대한제과협회가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와 더불어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의 주관 단체로 참여해 전체 제과업체가 식품 안전에 힘을 모아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있음을 널리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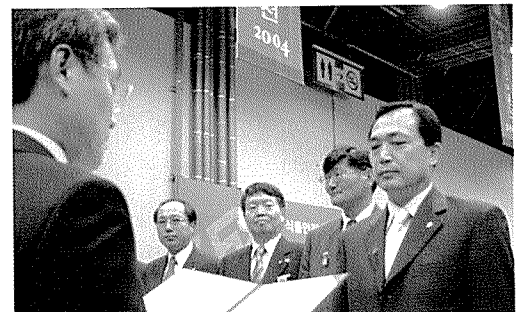
식품공예전에 전시된 빵과 설탕, 초콜릿으로 만든 집과 호랑이 같은 공예작품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사)대한제과협회 부스에서는 제과기능장들이 생크림 케이크 아이싱과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팔을 걷어 부쳤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능장표' 케이크와 빵은 판매에 나선 서울시지회 사무국장들이 부스에 내놓는 족족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현대제과제빵학원(원장 강언숙)과 대한제과제

빵학원(원장 오병호)이 손잡고 진행한 '나만의 쿠키와 케이크 만들기' 부스 앞에는 관람객들이 줄을 길게 늘어섰다.

이밖에도 75

개 우수안전식품업체가 참가한 우수안전식품전 2004와 (사)대한제과협회가 주관한 건강시민견기대회를 비롯해 식품안전홍보물상영, 학생글짓기대회, 학술세미나, 푸드나타공연 등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3일 내내 끊이지 않았다.

사회 전반에 걸친 웰빙 열풍이 식을 줄 모르는 2004년, 더욱 친근한 모습으로 거듭난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식품산업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식품안전에 대한 전 국민적 결의를 다지는 장으로 바짝 다가섰다.



(사)대한제과협회 조병천 부회장은 제과업계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 받아 식품안전의 날을 기념해 대통령상을 받았다.

식품안전의 날 '볼거리' '체험거리'



1. 식품업계 종사자들은 식품의 안전에 힘써 건전한 식문화 창달에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2. 인기 아나운서 정지영 씨와 꼬마 장금이 조정은 양이 식품안전의 날 홍보대사로 나섰다.



(사)대한제과협회 부스



식품가공체험관에 위치한 (사)대한제과협회 부스에서 마련한 나만의 쿠키·케이크 만들기, 기능장들이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바로 판매한 생크림 케이크는 그야말로 인기 '짱'이었다.

우수안전 식품전 2004



듀레초콜릿

식품안전우수업체 75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크라운베이커리, 듀레초콜릿, 한빛산업, 대두식품 등이 참가했다.

관람객에게 초콜릿 봉봉을 직접 만들어보도록 부스를 마련한 듀레초콜릿, 필링과 디핑을 하면서 무척이나 신기해 했다.



학생 글짓기대회 학술세미나



CROWN BAKERY



크라운 베이커리

소비자에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케이크 품질을 알리기 위해 퀴즈, 무료시식행사 등 다양한 부스행사를 마련했다. 크라운베이커리는 제과업계 최초로 HACCP를 획득했다.



식품안전의 날 푸드나라공연



제3회 식품안전의 날 3rd Food Safety Day 2004